

---

2016년도 장성군의회  
**국외 의정연수 결과보고서**

= 뉴질랜드, 호주 / 2016. 2. 26. ~ 3. 4.(8일간) =

---



**장 성 군 의 회**

# 목 차

I. 연수 개요 .....	2
II. 연수 일정 .....	3
III. 연수 내용	
1. 연수국가 현황 .....	4
• 뉴질랜드 .....	4
• 호 주 .....	8
2. 방문지별 주요 연수내용 .....	12
【 뉴질랜드 】	
•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탐방 .....	12
• 로토루아 시청·시의회 방문 .....	13
• 로토루아 레드우드 수목원 탐방 .....	16
• 로토루아 아그로돔 농장 방문 .....	17
• 오클랜드 지역문화 탐방 .....	18
【 호 주 】	
• 스트라스필드 시의회 방문 .....	21
• 시드니 블루마운틴 탐방 .....	23
• 뉴타운 네이버후드 센트리 방문 .....	25
• 포트스테판 지역문화 탐방 .....	26
• 시드니 도시환경 분야 견학 .....	29
IV. 연수결과 및 소감 .....	32

# 장성군의회 국외 의정연수 개요

## 1 연수 개요

□ 연수국가 : 뉴질랜드, 호주

□ 연수목적

- 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 제도, 도시환경, 문화관광 분야 등에 대한 비교 견학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 및 의회운영 방안 제고
- 국제적 안목과 전문을 넓혀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우수 시책 사례를 우리지역의 실정에 접목
- 선진 정책의 벤치마킹과 체험시찰을 통한 새로운 정책대안 모색

□ 연수기간 : 2016. 2. 26.(금) ~ 3. 4.(금) <8일간>

□ 연수인원 : 11명(의원 7, 직원 4)

□ 연수자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성 별	비고
의 원	의 장	김 재 완	남	
	부 의 장	차 상 현	남	
	의 원	김 옥	여	
	의 원	김 행 훈	남	
	의 원	김 회 식	남	
	의 원	고 재 진	남	
	의 원	김 상 복	남	
직 원	과 장	김 영 수	남	
	의사담당	김 정 구	남	
	주 무 관	황 송 화	여	
	주 무 관	김 유 석	남	

## 2

## 연수 일정

월일	장 소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제1일 (2/26)	인 천 오클랜드	전용버스 KE 129	09:00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성군의회 출발</li> <li>인천국제공항 출발</li> </ul>	
제2일 (2/27)	오클랜드 와이토모 로토루아	전용버스	08:10 10:30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클랜드 공항 도착</li> <li>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답사</li> <li>로토루아 지역문화 탐방</li> </ul>	
제3일 (2/28)	로토루아	전용버스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오리 민속마을 방문</li> <li>아그로돔 농장 견학</li> </ul>	
제4일 (2/29)	로토루아 오클랜드	전용버스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토루아 시청 공식 방문</li> <li>레드우드 수목원 탐방</li> <li>오클랜드 도시환경 분야 견학</li> </ul>	
제5일 (3/1)	오클랜드 시 드 니	NZ 101 전용버스	07:00 10:00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클랜드 출발</li> <li>스트라스필스 시의회 공식방문</li> <li>블루마운틴 탐방 및 체험</li> </ul>	
제6일 (3/2)	시드니	전용버스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트스테판 스타톤 비치, 돌핀크루즈, 와인농장 방문</li> </ul>	
제7일 (3/3)	시 드 니	전용버스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드니 도시환경 분야 견학</li> <li>뉴타운 네이버후드센터 공식방문</li> </ul>	
제8일 (3/4)	시 드 니 인 천	KE 122 전용버스	09:00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드니 공항 출발</li> <li>인천공항 도착</li> </ul>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하여 일정 추진

## 1. 연수국가 현황

## 1) 뉴질랜드(New Zealand)



[뉴질랜드]

뉴질랜드(New Zealand)는 남서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 태고적 아름다움을 지닌 나라이다. 두 개의 큰 섬(남섬과 북섬), 그리고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나라의 마오리어 명칭인 아오테아로아는 하얗고 긴 구름의 나라라는 뜻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 뉴질랜드는 자연과 도시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낙원이라고 불리는 깨끗한 나라이다. 공무원 청렴도 1위이며,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복지 국가로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인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 ◆ 수 도 : 웰링턴(Wellington)
- ◆ 인 구 : 451만 명(2013년 기준)
- ◆ 면 적 : 267.710km<sup>2</sup>(한반도의 약 1.2배)

- ◆ 기 후 : 해양성 기후
- ◆ 주요민족 : 앵글로색슨계 백인(68%), 마오리족(14%), 아시아계 9.2% 등
- ◆ 언 어 : 영어, 마오리어
- ◆ 종 교 : 기독교(성공회 17%, 장로교 11%, 카톨릭 14%)

**【지리】** 뉴질랜드는 호주로부터 1,600km 떨어져 있다. 뉴질랜드는 쿡 해협으로 격리된 남·북 두 섬으로 이루어지는 산이 많은 섬나라로서, 해발 200m 이하의 땅은 온 섬의 6분의 1 정도이다. 총면적은 북섬, 남섬, 스투어트 섬, 그 외 작은 섬들을 모두 합쳐 268,680km로 영국보다는 약간 크고, 일본보다는 작으며, 미국의 콜로라도주와 비슷하며, 대한민국의 2.7배, 한반도의 1.3배이다. 전체면적의 43%가 북섬, 56%가 남섬으로써 남섬이 더 크다.

두 섬은 지형적 성격이 크게 다른데, 북섬은 전체적으로 구릉성 토지가 펼쳐지는 가운데 에그몬트산(Egmont 山, 2,510m)을 비롯하여 화산이 돌출한다. 한편, 남섬은 서쪽에 남알프스 산지가 남북으로 달리고 빙설에 빛나는 고산지형이 탁월하다. 최고봉인 쿡 산(3,764m) 주변에는 태즈만·폭스 등의 대빙하가 발달해 있다. 산록부에는 빙하호, 서해안에는 U자 계곡이 침수한 밀포드 사운드 등의 아름다운 피오르드 해안이 발달해 있다.

뉴질랜드는 화산과 빙하의 나라로서 그 지형이 매우 아름답다. 남섬은 아직 원시림으로 뒤덮힌 지역이 많다. 특히 70%가 남알프스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한 산지이며, 평지는 고작 9%에 불과하다. 만년설을 이고 있는 3,000m가 넘는 고산준봉이 잇달아 이어지고 빙하의 침식을 받은 피오르드 지형은 수많은 호수와 U자 계곡을 형성하고 있어 변화가 풍부한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 북섬의 특징은 지열지대를 포함한 화산지대에 온천과 간헐천, 그리고 크고 작은 호수가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비옥한 목초지가 끝없이 펼쳐진다.

국토 최남단엔 스투어트 섬이 있고 크라이스트처치로부터 동편으로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 캐섬섬(Chatham Island)이 위치해 있다. 전체적으로

국토는 산과 언덕으로 뒤덮혀 있는데 75%가 해발 200m 이상이며, 국토의 최고점은 해발 3,754m인 쿡 산이다. 북섬의 가장 높은 산은 루아페후 산으로서 2,797m이다. 이러한 고산과 타우포 호수, 로토루아 호수는 약 1백만 년전에 발생한 통가리로 산의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것이다. 호수는 서기 186년에 화산폭발로 생성된 북섬의 타우포 호가 최대이다. 가장 긴 강은 북섬의 와이카토 강으로 425km에 달한다.

**【정치】** 뉴질랜드는 영국 여왕을 모시는 영연방 입헌 군주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왕이 상징적인 국가원수이지만 뉴질랜드 총독이 그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정부형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이며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나 실제로는 강력한 중앙집권제이다.

2004년에는 독자적 최고법원인 뉴질랜드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New Zealand)을 창설, 기존 영국판례만을 원용하던 사법권은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였다. 그 아래에 항소법원과 3개 지역의 고등법원, 지역 주요 도시들마다 지방법원이 있다.

**【경제】** 이 나라의 경제는 대부분 농목에 의존하고 있다. 목양(牧羊)은 이 나라 제1의 산업으로서 양은 북도에 60%, 남도에 40%의 비율로 분포한다. 양모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1차산품이 수출의 55%를 차지한다. 그외 육류·유제품(乳製品)은 양모에 버금가는 수출품이다.

낙농지역은 북도에 집중하며, 양모에 비하여 훨씬 집약적으로 경영된다. 남도의 동쪽 및 남쪽 연안에는 혼합농업 지역이 발달하여, 목초 등과 윤작을 하면서 곡류의 생산이 활발하다. 주요 수출품은 낙농품·육류·양모·목재·과실·약재 등이고, 수입품은 공산품·기계류·자동차·철강·원유·비료·금속제품 등이다. 1970년대 초까지는 영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이었으나 이후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고, 현재는 미국·중국·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의 교역량이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문화】** 이 나라에는 마오리족만의 토착 문화와 영국계 백인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마오리족은 높은 실업률, 상대적 빈곤, 범죄, 청소년 불량서클, 복지시설 부족 등의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불만으로 마오리족 고유의 문화가 부흥하는 민족주의 성향이 있다. 요즘에 들어서는 오클랜드, 해밀턴,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같은 대도시들에 여러 이민자들이 섞여 사는 이유로 뉴질랜드의 전통 문화는 점차 사라져 가는 편이다.

뉴질랜드는 오랜 전통과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특히 무대예술이 뛰어나, 음악·연극·무용 등의 전문인들이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다. 400개의 박물관과 화랑을 통해 예술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뉴질랜드 심페니 오케스트라(NZ Symphony Orchestra)는 연중 100여 회의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발레단은 26명의 종신단원으로 구성되어 국내 공연을 펼친다. 가장 큰 예술 행사는 2년마다 웰링턴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이다. 스포츠는 럭비가 가장 인기 있으며, 그 밖에 네트볼, 스쿼시, 소프트볼, 요트 등을 즐긴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49. 뉴질랜드 정부 한국 승인
- 1950. 뉴질랜드 군인 한국전쟁 참전
- 1968. 박정희 대통령 공식 방문
- 1961.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개설(71.6월)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개설(71.7월)
- 1976. Muldon 총리 방한
- 1993. Bolger 총리 방한(96년 재방한)
- 1999. Jenny Shipley 총리 방한  
김대중 대통령 뉴질랜드 국민 방문(9월)
- 2001. Helen Clark 총리 방한('03년, '08년 재방한)
- 2006. 노무현 대통령 뉴질랜드 국민 방문(12월)
- 2009. 이명박 대통령 뉴질랜드 국민 방문(3월)
- 2010. John Key 총리 공식 방한('12년, '13년 재방한)

## 2. 호주(Australia)

### Australia



호주는 6개 주와 2개의 자치령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정식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이다. 남반구에 속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태즈메이니아 섬,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의 많은 섬으로 이루어졌고, 세계에서 6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이다. 각주와 특별구역은 722개의 작은 지방자치구역으로 구분된다. 인구는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Wales)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빅토리아(Victoria), 퀸즐랜드(Queensland), 서호주(Western Australia), 남호주(South Australia), 태즈메이니아(Tasmania) 순이다.

호주는 해안을 접해서 도시들이 발달했는데, 가장 큰 도시는 시드니(Sydney)로 인구가 390만이고, 수도인 캔버라의 인구가 적은 이유는 행정수도의 목적으로 신설된 도시이기 때문이다.

- ◆ 수 도 : 캔버라(Canberra, 31만 명)
- ◆ 인 구 : 약 2,313만 명 (2013년 기준)
- ◆ 면 적 : 7,741,220km<sup>2</sup> (한반도의 약 35배)
- ◆ 기 후 : 온화한 대륙성 기후
- ◆ 주요민족 : 영국계(80%),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18%), 원주민(2%)

◆ 언 어 : 영어

◆ 종 교 : 기독교 67% 무종교 26%, 기타 7%

**【지리】** 적도 남쪽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동서 약 4,000km, 남북 약 3,200km에 이르며, 총 면적은 7,686,850km<sup>2</sup>로 세계에서 6번째로 넓은 나라이다. 지형·지질상으로 이 대륙은 크게 동부 고지·중앙 저지·서부 고원(西部高原)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본토 그리고 태즈메이니아 섬, 그 외의 많은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평균 고도가 340m로 전 대륙 중 가장 낮다. 고도별 빈도 분포에서는 200~500m에 해당하는 면적이 42%에 이른다. 즉, 호주 대륙은 낮은 대지가 넓게 퍼져, 기복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동남쪽에는 남북 방향으로 고기 조산대의 그레이트디바이딩 산맥이 뻗어 있고, 최고봉은 수도 캔버라의 남남서 120km 지점에 우뚝 솟은 코지어스코 산(2,230m)이다. 이 근처는 호주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지형으로 겨울에 눈이 오는 유일한 지형이기도 하다. 동쪽은 온난 습윤기후, 서안해양성 기후인 데다가 물을 찾기 쉬워 인구 밀도가 높다.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과 같은 대도시는 모두 이 지역에 분포해 있다. 대분수산맥의 서쪽은 건조한 스텝 기후의 대찬정 분지이지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므로, 소, 낙타, 양을 방목하고 있다. 대찬정 분지보다 더욱 서쪽은 그레이트샌디 사막, 그레이트빅토리아 사막, 킴슨 사막 등의 사막이 퍼져 있어, 인구 밀도가 매우 낮다.

**【정치】** 이 나라는 영연방 소속국가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한 1942년 웨스트민스터 법(Statute of Westminster Adoption Act 1942)에 따라, 명목상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국가원수이며,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의 추천을 받아 그가 임명한 총독이 다스리는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은 1986년 3월 3일에 제정되었다. 영국식 의회제도를 채택하여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는 연방의회가 있다. 도시의 산업가 층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당, 지방의 농목업자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당,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당이 3대 정당을 이룬다.

주 정부에 한정된 권한은 교육제도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크지만, 연방 전체에 관여하는 외교·국방·무역·금융 등은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외교·군사면에서 전반적으로 모국인 영국의 영향이 후퇴하고 미국과의 유대가 강화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에 가맹했고, 베트남에 파병한 바도 있다. 미국·뉴질랜드와의 사이에 공동 방위 체제를 갖는 앤저스(ANZUS)조약을 맺고 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국가(國歌)인 Advance Australia Fair(오스트레일리아여, 힘차게 전진하라!)는 1984년에 제정되었다.

**【경제】**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가 넓고 기후가 다양하여 천연 자원이 많다. 이 자원들을 그대로 해외에 수출하거나, 또는 이를 가공하여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광 산업 또한 발전하고 있다. 이 나라의 이름을 들으면 곧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양·밀 및 초원을 뛰어다니는 캥거루 등이다. 이것은 아무리 자원의 개발이나 공업화가 진척되어도 아직도 농목업이 이 나라 경제의 기반이 되어 있고, 경제활동의 분포는 인구분포와 마찬가지로 현저하게 대륙의 동남 지역에 편재하며, 원야인 채로 남겨진 공백의 토지로 태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옳은 일이다. 그러나 농목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최근 급격히 변해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문화】** 오랫동안 이민에 의한 인구 증가를 꾀해 왔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급속한 자원 개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또한 1930년대의 낮은 출생률에 기인하는 인구 구성의 틈을 메우기 위해서 이민 수용정책이 채용되었다. 이탈리아·그리스·네덜란드·독일 등지로부터의 이민이 많다. 한편 골드러시 때의 중국인 채광부와의 사이에 일어난 노동력의 덤핑 등의 문제가 얽혀서 발생한 백호주의 정책이 최근까지 채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 여론과 아시아로 눈길을 돌린 이 나라의 입장 등으로 백호주의 정책이 파기되었다. 국어는 영어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복지사회이다. 사회보장제도는 고령자·신체장애인 등에 대한 연금과, 실업자·병약자·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수당 등이 있다. 그 밖에 교회나 복지단체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주택정책이 잘 되어 있어 2008년 현재 호주의 주택 보급률은 70%를 조금 웃돌아 세대의 약 25%의 정도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영국계 주민이 많고, 영연방의 하나인 탓에 생활양식이 영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

오전과 오후에 반드시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으며, 크리켓 볼링·럭비 등의 스포츠가 활발하다. 이 외에도 골프나 경마, 수상 스포츠, 캠핑을 즐기고, 일요일 오후에는 지역적으로 있는 '아르보(오후라는 뜻)'라는 정원 맥주파티에서 서로 어울린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60. 호주정부, 대한민국 정부 승인
- 1950. 호주군 한국전쟁 참전
- 1953. 주시드니 총영사관 개설
- 1961. 외교관계 수립
- 1962.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1966. 대사관 캔버라 이전)  
주한 호주대사관 설치
- 1967. Holt 총리 방한
- 1968. 박정희 대통령 호주 방문
- 1988. 노태우 대통령 호주 방문
- 1994. 김영삼 대통령 호주 방문
- 1995. 취업관광(Working holiday) 비자 협정 체결
- 1999. 김대중 대통령 호주 방문
- 2006. 노무현 대통령 호주 방문
- 2008. Rudd 총리 방한
- 2009. 이명박 대통령 호주 방문
- 2011. Gillard 총리 방한
- 2013. Bryce 연방 총독 방한(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14. 한국 - 호주 자유무역협정 체결

## 2. 주요 연수내용

### ①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은 뉴질랜드 북섬 중북부에 있는 석회암 동굴로, 어느 마오리족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곳이다.
- 와이토모, 루마쿠리, 아라나우이 동굴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장은 종유석, 바닥에서는 석순이 마치 숲을 이루듯 늘어서 있다.
- 깜깜한 동굴속에 수만 마리의 희귀종인 반딧불이(그로우 웹)가 서식하는데, 이들이 내는 빛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연상하게 하는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다.
- 빛과 소리에 민감한 유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진촬영이나 소리내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동굴 밑으로 내려가면 물이 흘러 보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천정의 반딧불을 감상할 수 있다.
- 뉴질랜드 정부는 이곳의 관광수입을 마오리족을 지원하는데 쓰고 있으며, 운영하는 주체도 마오리족으로 정했다.



와이토모 전경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입구

### ❖ 시사점 ❖

- 컴컴한 동굴에서 수만년에 걸쳐 생명을 유지해 가는 작은 생물에게서 생명에 대한 경외와 애잔한 감동을 받았다. 이런 생물 보호를 위해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청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뉴질랜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

- 원형 그대로를 잘 보존하면서, 이를 관광 자원화시킨 점도 그렇지만 원 주민인 마오리족에게 사업권을 주어 자연과 사람, 그리고 원주민과 정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 이 동굴은 후손들을 위해 개발하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 ② 로토루아 시청 · 시의회

### ○ 로토루아시 일반현황

- 도시명 : Rotorua市
- 인 구 : 78,600명(2015. 12. 기준)
- 면 적 : 2,614.9km<sup>2</sup>
- 언 어 : 영어, 마오리어
- 특 성 : 마오리 문화의 중심지
- 연 혁 : 뉴질랜드 노스섬 중북부에 있는 행정구로, 로토루아 호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1870년대 초에 취락이 형성되어 1883년 특별구로 지정되고, 1922년에 자치시, 1960년대 초에 시로 승격되었다.

### ○ 로토루아 시의회 운영 현황

- 로토루아 시의원은 총 14명이며, 3명은 원주민 마오리족이다. 의원 내각제로 의회의 의장이 시장을 겸임하며, 시를 대표한다. 여성의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으며, 여성의 정치 참여도 매우 높은 편이다.
- 의원선거는 3년을 임기로 주민이 직접 · 보통선거로 선출한다. 지자체 최고기구로 Council이 있으며, 3년 임기를 갖는 시장과 시의원으로 구성되고, 그 밑에 시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전문가를 두고 있다.
- 로토루아 의회의 회기는 한 달에 6일 정도이며, 의회사무국의 직원은 24명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다. 정책보좌관은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며, 의원들 대부분이 의원직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파트타임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의정비는 3만6천불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 지방의회에는 비례대표가 따로 없으며, 시장과 시의원 모두 정당 공

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전체 공무원들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를 공유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체계이다.

- 한국과 달리 모든 건축 및 토지관련 허가권은 지방정부에 있고, 지방 정부의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부시장(General Manager)을 비롯한 모든 직원은 자체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인사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 뉴질랜드의 지방자치단체는 카운티(County), 버러(Borough), 타운(Town) 등이 있으며, 정치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 정부의 힘이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선 행정의 측면에서 보면 지방 정부는 상당히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로토루아 시의회 역점 사업

- 건국의 역사가 짧은 뉴질랜드로서는 마오리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중요시하며, 뉴질랜드 나라 특성에 맞게 농장관련 사업과 관광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현재 마오리는 뉴질랜드 전체인구의 15%정도를 차지하며, 정부에서 마오리부족 보존에 힘쓴 결과, 마오리족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호주의 에버리진 정책이나 미국의 인디안 정책과 달리, 뉴질랜드는 마오리문화를 인정하고 통합을 선택한 나라로 로토루아의 마오리족들은 이곳 마오리문화를 알리는데 자부심이 높다.



로토루아 시의회 전경



로토루아 시의회 내부 모습



❖ 시사점 ❖

- 로토루아시는 아름다운 자연과 지열·화산지대라는 지역특성, 마오리 전통문화를 관광 자원화하여 뉴질랜드의 내로라하는 관광명소로 발전하였다. 뉴질랜드 문화는 곧 마오리 문화라고 할 만큼 마오리 전통문화를 정책적으로 보존해 왔으며, 이는 뉴질랜드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우리 장성군도 ‘문불여 장성, 선비의 고장’으로써 선비문화를 가지고 있고, 나름 선비문화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으로, 좀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그 못지않게 선비문화를 잘 보존해 나가는 것도 훗날 우리 군에 큰 자산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 의원의 임기가 3년임을 감안할 때, 5년 임기의 전문경영인이 이끄는 행정조직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안정감을 준다. 정치제도가

다르다지만, 유능한 전문인력을 의회에서 주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 로토루아 시청 내부에는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기계가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날의 고객만족도를 바로 피드백해 볼 수 있어 장성군청에도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 이밖에도 지역의 5%를 공원으로 활용할 만큼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점과 마오리족에게도 의석을 배분하여 정치에 참여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 ③ 로토루아 레드우드 수목원

-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인공수목원으로, 세계 2차대전에서 희생된 뉴질랜드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산 레드우드 품종을 식재하여 지금의 울창한 수목원이 되었다.
- 50만평의 면적에 아름답디나무들이 무성하며, 비옥한 토질과 온화한 기후 덕분에 일년에 1.8m씩 자랄 정도로 생육이 빠르다.
- 엄청난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퇴적물이 쌓여 있는 바닥을 걸을 때는 양탄자 위를 걷는 것처럼 폭신한 느낌을 주어 피로를 덜어 준다.
- 수목원의 산책코스는 30분에서 8시간 코스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구간마다 색깔로 표시되어 있어 이용객 편의를 배려하였다.



레드우드 수목원 내부



수목원 최고령 나무



### ❖ 시사점 ❖

- 우리 군 축령산처럼 걷는 것 자체로 행복감을 주는 원시림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휴양림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점 등에서 축령산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 큰 면적에도 불구하고 데크 설치 등 인공적인 시설물은 최소화하였으며,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닌 오히려 원형을 보존하는 것에서 관광지로써 경쟁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
-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맑은 공기가 상품화되는 시대도 올 것인데, 적절한 보존과 개발을 통해 축령산을 잘 가꿔나간다면, 이곳 레드우드 수목원처럼 매년 수많은 국제 관광객이 우리 군은 찾는 것도 머지않은 현실이 될 것이다.
- 레드우드 수목원에는 나무를 연구하는 임업 시험장을 두어 상업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산림자원이 풍부한 우리 군에도 이와 유사한 기관을 두어 편백나무와 축령산 등 산림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 ④ 로토루아 아그로돔 농장

- 낙농국가 뉴질랜드 전형적인 농장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160ha 규모에 19종의 양, 염소, 알파카, 타조 등을 사육하고 있다.
- 기존 목장을 1972년에 Agrodome레저 공원 및 양 쇼장으로 전환하여

관광농장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양쇼와 양털각이 시범, 소젖짜기 체험, 양몰이 개쇼 프로그램 등이 있다.

- 연평균 3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명 관광지답게 5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을 배려하는 센스가 돋보인다.



### ❖ 시사점 ❖

- 뉴질랜드의 전형적인 농장의 모습을 관광 상품화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지만, 가축을 방목이 아닌 집단 사육하는 우리 군 실정에 반영하기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 통역서비스 언어 중에 한국어 통역이 있다는 점에서 문화관광 교역에서 한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희생시키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씩씩한 여운이 남기도 한다.

### 수 오클랜드 지역문화 탐방

#### ○ 마이클 조셉 세비지 메모리얼 파크

- 세계 대공황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1930년대 복지국가 뉴질랜드의 초석을 다진 마이클 조셉 세비지(1871~1940) 총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공원이다.



마이클 조셉 세비지 메모리얼 파크



메모리얼 파크 전경

### ❖ 시사점 ❖

- 1년 365일 잘 가꾸어진 정원과 오클랜드 시내와 바다가 보이는 관광명소로, 이곳에 안장된 마이클 조셉 세비지 총리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 자연스럽게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성공원과 비교가 됐으며, 우리 군도 장성공원을 지역을 상징하고 군민에게 사랑받는 곳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장성공원에서 처음 개최한 '제1회 가을 노란꽃잔치'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높게 평가되며, 그동안 지역민에게 외면 받아온 공원에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 【Who is he?】 마이클 조셉 세비지 - 뉴질랜드를 복지국가로 만든 건축가

뉴질랜드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로 꼽힌다. 아이들 양육비에 실업수당, 노인연금에 이르기까지! 게다가 의료혜택이나 장애인복지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러나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어떤 사람이 없었다면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 사람, 마이클 조셉 세비지이다.

### ■ 열네 살 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든다.

마이클 세비지는 1872년 3월 23일 호주 빅토리아에서 여덟 형제 중 여섯 번째로 태어났다. 영국에서 삶의 기반을 잃고 호주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부모는 새 땅에서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야망을 품지만 신천지에서의 삶은 생각만큼 여유롭지 못했다. 마이클 세비지는 여섯 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 열네 살 때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처지가 됐다. 정식교육을 받은 기간은 고작 5년이었다. 10대 중반에 그가 잡은 일자리는 술가게 점원이었고 그곳에서 7년을 일했다.

동네사람들은 마이클을 뛰어난 웅변가로 기억했다. 운동 잘하고 말 잘하는 젊은이가 바로 그였다. 20대에 들어서 좀 더 다양한 직업을 얻게 됐다. 소방관, 광부, 기관사, 빵집 점원 등 여러 삶의 현장에서 인생교육을 받았다. 뒷날 정치인이 되었을 때, 이 경험은 유권자들의 고달픈 심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1907년 노동절, 마이클은 웰링턴에 도착했다. 6개월간 옷감짜는 직공으로 일하다가 오클랜드로 올라왔다. 그에게 주어진 자리는 양조장에서 포도주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이 일을 하면서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호주에서 배운 노동운동 비법을 뉴질랜드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양조장 직원 노조대표가 됐다. 1910년에는 오클랜드무역위원회 회장 자리를 거머쥐었다. 다음 해에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 들어 사회주의당 두 번째 자리를 꿰찼다. 1916년 노동당 창당 때, 주요 역할을 감당해 내며 뉴질랜드 땅에 노동당의 깃발을 내거는 선봉에 섰다.

### ■ 두 번 낙선 후 국회의원 당선

그 사이 두 번에 걸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다시 일어서는 오뚝이 정신을 보여 주었다. 1919년 마침내 국회의원이 되었다. 오클랜드 서부지역을 대표해 당선됐다. 노동당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던 그는 마침내 날개를 달게 됐다. 1933년, 해리 홀랜드 대표가 사망하자 그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1920년대 내내 전국을 돌며 대중을 상대로 역설해 나가던 노동당 정책을 국민이 심판할 때가 왔다. 총선에서 그에게 얼마만큼의 지지를 보여줄지 미지수였다.

마이클 세비지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 낸 노동당의 정책은 오늘날 뉴질랜드 복지제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연금제도, 무료의료혜택,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한 것이다.

결과는 압승이었다. 뛰어난 웅변가가 쏟아내는 뉴질랜드의 청사진은 서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때마침 세계 대공황이 닥치면서 그 여파가 뉴질랜드까지 미쳤지만, 그의 공약은 가뭄에 단비 마냥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서민적' 이라는 데 있었다. 공부도 많이 못하고, 재력가도 아니었지만, 대중은 마이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되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었다. 대중연설이 있는 날에는 수만 명의 청중이 모여 연설을 들었다.

### ■ 국민들에게 친구같은 총리

그러나 그에게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왔다. 총선이 있던 1938년, 그의 진가를 다시 발휘해야만 했던 그때 몹쓸 암에 걸렸다.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수술을 늦췄다. 개인보다 국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국민들은 그에게 재집권이라는 선물로 보답했다. 하지만 병은 더욱 위독해졌고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졌다. 대리총리를 세운 뒤에서 집에서 국사를 처리했으며, 라디오를 통한 대국민 연설과 대화는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마이클 세비지는 뉴질랜드 정치의 성인으로 추앙받기에 이르렀다.

대중으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던 마이클 세비지는 1940년 3월 27일 웰링턴에서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국정을 놓지 않았던 그는 국민들에게 '친절한 총리 씨' 로 통한다. 결혼도 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동고동락한 마이클 조셉 세비지 총리, 그는 뉴질랜드 역사에서 역대 총리 중 가장 뛰어난 총리로 기록하고 있다.

## ⑥ 호주 스트라스필드 시의회

### ○ 스트라스필드시(市) 일반현황

- 인 구: 3만 7천여명
- 면 적 : 14.1km<sup>2</sup>
- 의회구성 : 의원 7명(자유당 3, 노동당 2, 무소속 2)

### ○ 방문개요

- 목 적 : 호주의 의회운영 및 시의 주요선진정책 등에 대한 비교 연구
- 주요내용 : 스트라스필드 시(市) 일반현황 청취 및 의원내각제 정치 제도 운영에 따른 장·단점 비교 및 시설 견학
- 면 담 자 : 옥상두 의원(시장)

### ○ 주요 브리핑 내용

- 1950년대 이후로 스트라스필드시는 점차적으로 다문화지역으로 바뀌어 주민의 50% 이상이 비영어권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이며, 한국과 중국, 인도 등 3개 민족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다. 이 중 한국계는 4천명 정도로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송 물류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유명한 도시이다.
- 최근,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올림픽공원에 1만평 규모의 한국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호주에서 특정국가를 위한 공원을 짓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한국정원과 전시장, 극장시설이 있는 문화센터가 함께 조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 현재 한국 가평군과 유일하게 자매도시를 맺어 한국전 참전동맹으로서 인도적 친선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도시 간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등 교육관련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 스트라스필드 시의회 운영 현황

-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호주는 의장이 시장직을 겸임한다. 스트라스필드시의 경우 시장, 부시장 선거방법은 7명의 시의원 중에 시장, 부시장을 간선제로 선출하며 시의원 전체임기는 4년이지만 시장·부시장 임기는 1년이다.
- 호주의 선거제도는 의무투표제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며 약 90% 이상의 투표율을 보인다. 대선거구제 형태로 유권자들이 당에 투표하게 되면 전체 득표수에서 출마자 한 사람당 필요한 득표수가 충족된 만큼 당별로 한명씩 당선시킨다.

- 주정부나 연방정부와의 관계는 당의 지시를 받거나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의회에 올라오는 안건의 95% 정도는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 의회는 일반회의, 전체회의, 특별회의 등 거의 매주 일종의 공개회의를 한 번 정도씩 개최하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회에 언론인의 배석이 지정되어 있다.
- 주민관람석이 있어 회의 시작 전에 주민발언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 안건마다 발언권을 줌으로써 주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
- 의원은 별도의 직업이 있으며, 약간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만 거의 무보수로 지역에 봉사하는 의미가 크다. 그런 관계로 안건의 내용과 의원 간에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에 참석할지 불참할지를 정하여 책임여부를 결정한다. 의원 스스로도 신고해야 되지만 4개의 심의기관에서 교차점검을 함으로써 부정청탁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스트라스필드 시의회 방문 기념촬영

시의회 외부 전경

## ❖ 시사점 ❖

- 스트라스필드 시의회는 150년 전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외형보다는 내실을, 그리고 (건국의 역사가 짧지만) 역사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선진국다운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 의원내각제 형태의 지방정부로 다문화 정책을 표방하는 나라답게 한국인 출신이 시장(옥상두)직을 맡고 있음에 놀라웠고, 호주에서 한국교포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에 한한 것이지만, 본회의장에서 시민이 특정안건에 대해 직접 발언을 하고 의원들이 이를 청취하는 시스템은 보다 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 행정을 총괄 관리하는 전문경영인을 두고 있는데, 의회에서 실적에 따라 연봉과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좀 더 행정의 전문성을 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7] 시드니 블루마운틴

- 블루마운틴은 멀리서 보았을 때 산이 진한 푸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이는 유칼리나무에서 증발된 유액 사이로 태양광선이 통과하면서 파장이 가장 짧은 푸른 빛을 반사하면서 생긴 것이다.
- 산지의 대부분은 붉은 색을 띤 사암층(砂岩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곳곳에서 사암이 침식되면서 생긴 수직절벽들을 볼 수 있다.
- 블루마운틴 산악지대에서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은 카툼바 지역의 에코 포인트(Echo Point)다. 세자매봉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바위산을 비롯해 블루마운틴의 탁 트인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 세자매봉은 비슷한 세 개의 사암 바위가 융기한 형태로 주술사가 마왕에게서 세 자매를 보호하려고 돌로 만들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다. 에코포인트에서는 최대 경사면이 52도에 이르는 가파른 협곡을 달리는 퀘도열차를 타고 협곡 깊은 곳까지 구경할 수 있다.
- 1880년대에 협곡 아래 탄광에서 석탄과 광부들을 나르기 위해 설치되었다는 퀘도열차는 가장 가파른 지역을 달리는 열차로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다고 한다.

- 산악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폭포와 140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던 원주민들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도 블루마운틴 관광의 묘미다.
- 블루마운틴은 또한 91종의 다양한 유칼리나무, 올레미아소나무를 비롯한 희귀식물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학적 가치도 무척 높은 곳이다.



### ❖ 시사점 ❖

- 폐광지역을 휴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닌, 주변의 자연경관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 과거 석탄을 생산한 때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 우리 군도 고려시멘트 폐광지역을 혐오시설로만 인식할게 아니라 폐광을 활용하여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 블루마운틴 세자매봉 전설처럼, 우리 군 옐로우시티의 근원이 되는 황룡강의 전설 스토리텔링화도 관광객들이 흥미를 갖고 지역방문까지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다양한 홍보전략이 요구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 사실, 호주에는 석유와 석탄을 비롯한 많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국민이 600년간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는데 개발은 미루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먼 미래를 내다본 호주 정부의 정책결정도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다.

## ⑧ 포트스테판 지역문화 탐방

- 시드니에서 북동쪽으로 160km 지점에 위치한 대규모 자연항이다. 최대 길이는 24km, 최대 너비는 6.5km, 수면 면적은 118.9km<sup>2</sup>으로 시드니항(港)보다 규모가 더 크다.
- 1770년 5월,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지나가면서 영국 해군 본부장이자 친구였던 필립 스티븐스 경(卿)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
- 본래 화산이었던 두 개의 구릉 사이로 좁은 항구 입구가 있다. 남쪽 곳인 토마리(Tomaree)가 평균 해면 120m, 남쪽 곳인 야카바(Yacaba)가 210m로 높이 솟아 있다. 항구 주변은 대체로 수심이 얇고 모래가 많지만 큰 배를 수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수심이 깊은 곳도 있다. 113km의 긴 해안지역 중 3km 구간에 2만 6000명 이상의 주민이 몰려 산다.
- 농사를 짓기에는 토양이 척박한 편이어서 큰 도시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주요 항구로 부상하지 못했다. 항구 서쪽 해안과 북서쪽 해안 지역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목지대이고, 항구 어귀에 가까스로 지미스 해변(Jimmys Beach)부터 미올강(Myall River) 어귀까지 약 5km의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다.
- 1970년대 이래, 시드니로부터 이어지는 도로가 건설되면서 휴양지와 관광지로 인기가 높아졌다. 2005년 12월, 이 지역의 다양한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포트스티븐스-그레이트레이크해양공원이 지정되었다.



❖ 시사점 ❖

- 프랑스 남부지역과 비슷한 기온과 토지를 가진 포트스테판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곳 와인은 많은 미식가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큼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
- 넬슨 베이에서 크루즈를 타고 1시간 30분 가량 포트스테판을 둘러보는데, 이곳에 서식하는 야생돌고래를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어 신비한 경험을 선사한다.
- 바다와 사막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스타톤비치에서의 모래썰매를 탈 수 있는데 뜨거운 사막에서 썰매를 구상하고 이를 관광상품화 한 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례라고 할 만 하다. 전국 잔디의 62%를 생산하는 우리 군도 잔디를 활용한 썰매로 관광 상품 개발을 새롭게 시도해 볼 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9] 뉴타운 네이버후드 센트리(NCC)

○ NCC 주요역할 및 기능

- 뉴타운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센터링크에 등록된 취약계층에 공동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용, 긴급거주, 아동보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지역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이며, 자원봉사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이 지역사회 안에서 불편을 최소화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 주민대행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매주 목요일 주민들에게 이·미용, 상담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많다.
- 노숙자들을 시설로 입소시킨다든가 새로운 숙소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함께, 비영어권의 주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고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성취욕이 떨어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고, 노인복지 혜택도 무조건적으로 주기보다는 노인들의 자활의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네에버 후드 센트리 공식 방문



NCC 소개 및 주요사업 브리핑

### ❖ 시사점 ❖

- 뉴타운 네이버후드 센트리(NCC)의 핵심은 복지기관, 관공서, 의료시설, 민간단체 등 여러 기관들 간에 네트워크가 잘 연계되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다.
- 장성군도 군청을 비롯해 관내 여러 기관별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들 기관 간에 연계성은 미흡한 실정으로, NCC처럼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구심점 역할을 통해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 호주정부는 낮은 인구밀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세대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군도 고령으로 인한 거동불편으로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 대행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다.
- NCC의 경우, 연방·주·지역정부에서 받은 예산보다 지역 내 기부를 통해 유입되는 예산이 훨씬 많을 만큼,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자도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 우리 군의 경우, 금전적인 기부문화도 더 확산되어야 하겠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 확산으로 훈훈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일궈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 NCC 센터링크의 영역별 서비스 지원 내용

구 분	세부 프로그램 정보서비스의 종류
<p style="text-align: center;">퇴직자 혹은 퇴직희망자를 위한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령연금(Age pension)</li> <li>• 연금자 보너스 계획(Pensioner Bonus Scheme)</li> <li>• 금융정보서비스(Financial Information Service)</li> <li>• 연금면허카드(Pensioner Bonus Scheme)</li> <li>• 고령자 건강카드(Commonwealth Senior' Health Card)</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특수계층을 위한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자보조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li> <li>• 간호인연금 (Care Payment)</li> <li>• 병약자수당 (Sickness Allowance)</li> <li>• 이전수당 (Mobility Allowance)</li> <li>• 간호인수당 (Carer Allowance)</li> <li>• 맹인우편면허 (Postal Concessions)</li> <li>• 특별급부 (Special Benefit)</li> <li>• 유족수당 (Bereavement Allowance, Payment)</li> <li>• 미망인수당 (Widow Allowance)</li> <li>• 배우자수당 (Partner Allowance)</li> <li>• 연금면허카드 (Pensioner Concession)</li> <li>• 농촌가정수당 (Farm Allowance)</li> <li>• 가뭄구조금 (Drought Relief payment)</li> <li>• 재해구조금 (Disaster Relief Payment)</li> <li>• 건강보호카드 (Health Care Cards)</li> <li>• 주부연금 (Wife pension)</li> <li>• 벽지수당 (Romate Area Allowance)</li> </ul>

<p>구직자를 위한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수당 (Youth Allowance)</li> <li>• 교육수당 (Austudy, ABSTUDY)</li> <li>• 고립자아동지원 (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Schem)</li> <li>• 연금자교육보조 (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li> <li>• 대여보조 (Loan Supplement)</li> <li>• 실직수당 (Newstart Allowance)</li> <li>• 고용프로젝트참여보조 (Community Development Employment Project Participant Supplement and Supplementary Benefits)</li> <li>• 중·노년수당 (Mature Age Allowance, Mature Age Partner Allowance)</li> </ul>
<p>가족을 위한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li> <li>• 가족납세수당 (Family Tax Payment)</li> <li>• 고아연금 (Double Orphan Pension)</li> <li>• 임신부수당 (Maternity Allowance)</li> <li>• 양육수당 (Parenting Payment)</li> <li>•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Job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li> <li>• 임신부면역수당 (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li> </ul>
<p>기타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및 사회사업</li> <li>• 보상, 금융정보, 지대 공제, Centrepay 등 서비스 포함</li> </ul>

## 10 시드니 도시환경 분야 견학

###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The Sydney Opera House)

- 국제공모전에서 1등으로 당선된 덴마크의 건축가 요른 웃손(Jørn Utzon)이 설계한 것으로 1973년 완공되었다. 역동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건축하는 데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개관 테이프를 잘랐다. 시드니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요트들의 돛모양을 되살린 조가비모양의 지붕이 바다와 묘한 조화를 이루며, 지금은 시드니를 상징하는 건물로 인식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 하버브리지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공연 예술의 중심지로서 극장과 녹음실, 음악당,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시드니심포니오케스트라 및 오스트레일리아국립오페라단·무용단 및 여러 연극단의 본거지이

며, 도서관시설도 갖추고 있다. 2007년에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하버브릿지(Hobour Bridge)

- 1932년 개통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주목을 받았다. 여전히 세계에서 폭이 가장 넓은 다리로 일컫는 하버 브리지 위에는 8차선 도로에 철도 노선과 인도까지 놓여 있다. 하버 브리지 전망대에 올라가는 것도 시드니 관광의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다. 다리를 받치고 있는 기둥 중 하나는 박물관과 전망대로 꾸며 있다. 전망대는 200여 개 계단을 오르면 갈 수 있는데, 룩스의 아가일 백화점 옆으로 난 계단을 오르는 방법도 있다.
-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시드니 전경은 환상이다. 전망대에 오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리 정상에서 시드니 만을 조망할 수 있는 ‘브리지 클라임’에 도전한다. 안전줄 하나에 의지해 해발 141m 교각을 오르는데, 예행연습까지 포함해서 3시간가량 소요된다.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다리를 오르는 일이 쉽지 않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시드니 하버브릿지

❖ 시사점 ❖

- 호주정부에서 호주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을 구상하면서 오페라 하우스

스를 건립하게 되었는데, 오랜 기간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어 랜드마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우리 군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성을 떠오르게 하는 랜드마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최근에 건립한 애플탑 조형물처럼 이러한 시도를 꾸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옐로우시티, 장성을 상징하는 아치 조형물도 심미적·기능적 가치 외에 지역의 상징물로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하는 등 미래가치가 높은 랜드마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하버브릿지 전망대를 오를 때 40분 가량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물건을 떨어뜨릴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작은 소지품도 금하고 있었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국다운 면모를 볼 수 있다.

국외 의정연수는 비록 역사와 문화는 다르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기대와 설렘을 준다. 이번에 방문한 뉴질랜드와 호주 역시 건국의 역사는 짧지만, 문화와 관광, 사회복지, 환경 등 정부정책에서 선진국이기에 더욱 기대한 바가 컸다.

이번 연수를 통해 뉴질랜드와 호주의 문화를 체험하고 선진사례를 배우면서 장성군의 현재를 되돌아보고, 지역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발전을 위해 견문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6박 8일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여정을 시작했다. 특히, 금년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25년을 맞는 해이자, 우리 군 옐로우시티 장성,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 개막을 맞아 적용 가능한 정책 연구 및 우리 군 접목 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 ■ 지역사회 다문화 감수성을 높여야!

호주 연방정부는 국방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정 인구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자유로운 인구유입에 방해가 되는 백호주의를 철폐했다. 일찍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하여 추진해 온 만큼 다문화사회가 가장 잘 발달한 곳이었다. 가끔씩 인종차별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지만 이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사회도 '다문화'라는 용어를 공식적인 정책용어로 사용한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우리 군도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번 국외 연수를 통해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 호주는 계획적으로 다문화사회를 준비한 반면, 우리 한국은 농촌에서 국제결혼 등을 통해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면서부터 관심을 갖게 돼 다소 미온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단일민족, 혈통중심의 토착적 문화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쉽지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는 이제 현실이 되었고,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고령화를 대체할 노동인구가 있어야 국가든 지방이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다. 우리 장성군도 고령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또, 우리 지역을 비롯한 농촌에서는 결혼이민 여성의 이탈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호주의 경우, 그 나라 문화적응을 위해 일정기간 호주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배우자도 함께 교육에 참여하게 해 가부장적 권위를 내려놓고 상대방 문화와 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 지역사회 다문화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문호를 개방하고 다문화를 대하는 지역사회의 환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근거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도 그렇지만 새터민(탈북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새터민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다문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라는 생각이 든다. 지자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다문화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무조건적인 퍼주기 정책보다는 이민자의 역량 제고를 통해 이민자 인력을 국가나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지방의회 전문성 높이는 제도개혁 필요하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로써, 이번 연수를 통해 느낀 이들 나라의 의회제도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지만 연방·주·지방 정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시의회와 지역사회 각 기관간의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잘 연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호주의 경우,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통신, 복지, 고속도로를 관장하고 주정부는 경찰, 학교, 병원, 대중교통 및 주요도로, 주택공급 등에 관한 서비스를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처럼 쓰레기 수거, 주차위반, 체육시설 및 어린이 시설관리, 도서관, 예방접종, 요식업 위생검사, 나무보존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행정은 일정한 자율성을 주어 행정전문가에게 맡기고 중요한 정책 결정에만 Council을 열어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있다. 행정전문가는 의원의 임기와 다르게 5년 단위로 임용하며, 실적에 따라 연봉과 연임 여부를 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어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정부나 연방정부와의 관계도 소속당의 지시를 받거나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의회에 올라오는 안건의 95% 정도는 만장일치로 의결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지방의원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도 부족한데 여러 가지 여건상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지방의원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의견과 행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눈치 보지 않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임무이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개원 25년을 맞고, 역할과 기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 옐로우시티와 함께 시민의식 향상을!

해외를 다닐 때 그 나라를 가늠하는 척도로, 자동차 경적소리와 시민들의 걸음걸이, 기성세대와 현세대의 얼굴 표정을 보라는 말이 있다. 호주나 뉴질랜드를 진정한 선진국으로 이끌게 한 것은 정부정책도 있겠지만 국민의 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수를 진행하는 동안 자동차 경적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으며, 보행자나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항상 여유있는 모습,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이래서 선

진국이나 하는 생각을 들게 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성장과 시민의식에는 소홀히 해왔다.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 국민의식을 높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비롯한 사회적인 갑을 관계, 도로 위 보복운전, 긴급차 길터주기, 주정차 위반 등 기초질서 문란 등 언론과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례를 흔히 접할 수 있다. 또, 우리 사회는 전체를 보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데 선진국처럼 전체를 구성하는 작은 것들의 관계를 주목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군은 예부터 ‘문불여 장성, 선비의 고장’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 충과 효, 절의와 품격을 갖춘 지역임을 대내외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 지역도 다른 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어졌다. 우리 군은 민선 6기를 맞아 사계절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계절 향기는 꽃향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이 있고 사람냄새가 물씬 풍기면서 화합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웃음꽃에도 향기가 있다. 특히, 옐로우시티 사업은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점에서, 과거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처럼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군 옐로우시티 사업이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이에 걸맞은 장성군민의 의식문화를 한층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랜드마크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존 웃손이 아내가 준비한 오렌지 조각의 모양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한 호주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자 자랑이다. 오페라하우스의 경우처럼 랜드마크는 지역을 상징하면서 관광수입 증대는 물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을 외부에 알리고 도시

의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랜드마크(Landmark)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랜드마크가 반드시 건축물이나 구조물이어야 할 이유는 희석되었다. 인근 함평의 '나비', 강진의 '청자', 담양의 '대나무'처럼 건축물이 아닌 것도 지역을 떠올리게 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관광상품으로써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이 민선 6기를 맞아 '옐로우시티'를 내세워 전국 최초로 색깔마케팅을 시도한 점은 참신하고 훌륭한 발상이라 생각된다. 관 주도에서 탈피해 관내 기업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주민 등과 거버넌스를 형성해 꽃동산을 조성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결들였다. 군민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으며,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옐로우시티라는 장성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더불어, 지난해 장성읍 오거리 회전교차로에 애플탑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와 연계하여 명품사과거리를 조성한 점도 외지인들에게 특산품인 장성 사과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알려 적절하면서도 실속을 챙겼다.

이처럼 지역의 상징인 랜드마크를 만들어 내는 일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인공적인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만드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자원들 중에 군민이 공감하고 외지인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것을 골라 지역실정에 맞게 잘 다듬어야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 군은 옐로우시티 장성을 상징하는 아치 조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물량을 투입해서 눈에 띄는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바라보는 위치를 바꾸어 보고,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 청정국의 환경보호, 좋은 것은 그대로!

호수에 첫 발을 디딘 후에 오찬을 위해 한참을 이동하고 먹게 된 메뉴가

스테이크였는데, 그곳에서 파리에가 얼마나 극성이었는지 곧장 날려 보내도 어느새 새까맣게 달라붙는다. 현지 인솔자에게 왜 식당에서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냐는 질문에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청정국가라서 일체의 농약사용은 금지되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일반 가정집에 있는 개인 소유의 나무라도 함부로 베지 못하고 관청에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에 새삼 놀라웠다.

연수 중에 방문한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레드우드 수목원, 아그로돔 농장 등 주요 관광지는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원과 습지들을 보면서 개발보다는 있는 그대로 두고, 개발하는 경우에도 환경 친화적으로 하여 이를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공항에서 농·수산 식품 검역 등 입국심사가 왜 그렇게 엄격하고 까다로운지에 대해 수궁하게 됐으며, 어쩌면 와이토모의 신비로운 반딧불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노력의 산물일 것이다.

최근,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리고 살릴 규제만 살리겠다는 발언으로 강력한 규제개혁의 의지를 피력했다. 물론,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환경보호와 같은 착한 규제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지역도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축령산도 각종 규제와 관할 행정청과의 이견 등이 맞물려 묶여 있는 것들이 많다. 축령산만 보더라도 규모와 수령 등 모든 면에서 장흥편백림을 앞서지만 개발에 뒤쳐져 인지도 면에서는 장흥군에 밀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갈수록 환경오염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머지않은 미래에는 깨끗하면서 자연 그대로인 것들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과거, 춘원 임종국 선생께서 나무를 심을 때의 축령산이 지금 우리 지역에 멋진 보물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자연환경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은 유지하되, 지역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환경보호와 '좋은 것'들은 계속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 ■ 사회보장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에 대한 고찰

뉴질랜드는 1930년대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슬로건에 맞게 국민들의 복지 보장을 위하여 최초로 종합적인 사회복지 보장제도를 수립하였다. 이 제도는 개인적(노약, 질병, 장애 등)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편부모, 고아, 과부 등)에게 경제적 보조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과 실직자들을 위한 직업관련 수당 또한 제공한다. 실업자에게 취업을 돕고 개인적, 가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Work and Income New Zealand’ 라 한다. 이 정부 기관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수당을 심사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전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뉴질랜드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는 노후연금, 퇴직연금, 상이군인연금, 퇴역군인연금, 학생 수당, 양로원 수당, 과부 수당, 장례비용 수당, 가족 수당, 고아 수당, 유아원보조연금, 의료제도이다.

호주는 세계의 여러 선진국들 중에서 특히 우수한 사회복지제도를 제공하는 국가로 손꼽힌다. 이렇게 잘 정비된 사회복지제도는 호주가 이민국으로 자리잡아 가는데 매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호주의 사회복지제도는 1901년에 연방이 시작된 이래로 1909~1910년, 노령연금 및 장애인 연금을 도입하고 다시 1912년에 인구증가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출산 수당을 도입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시행에 이르렀다. 주정부는 연간 국민 총생산고의 1/4을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에 책정하고 있으며, 모든 수당은 의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수령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식을 띄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소득 지원을 하게 된다. 오늘날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연금과 수당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고 연금제도는 고령자, 장애인, 미망인 등 일정 기준 이상으로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 1주 당 연금을 정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수당제도는 저소득자, 이주자, 실업자, 질병자, 난민, 재해, 자녀양육, 학생 등의 적절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제도이다. 연금이나 수당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과 자산

평가를 거친 후에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지급되고 있다.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치료비가 거의 무료이며, 의료수준 또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사립병원은 대부분 공립병원보다 소규모이며 조용하고 대우가 좋지만 사설의료보험에 들지 않는 한 치료비가 상당히 비싸다.

호주가 이민국가로 선호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복지제도인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에서 지급한 보조금이나 수당을 받아서 사는 인생은 호주 최하층의 삶이 된다. 한국은 너무나 복지안전망이 빈약하여 선진국 복지와는 비교되지만 호주의 복지도 결코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호주의 복지제도라는 것이 현실보다 상당히 과장되어 한국에 소개되어 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호주로 이민을 선호한 친구의 말은 이렇다. 이민비자로 돈 벌어서 이민공사와 이민을 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로 먹고사는 유학원들 그리고 한국이민자가 늘어나야 사는 게 편해지는 수많은 현지 교민업자들의 잘못된 과장광고 때문이다.

호주에는 상당히 많은 복지수당들이 있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들이 있을 경우, 나오는 양육보조비와 학교를 다니면 나오는 Austudy, 구직활동자에게 나오는 실업수당, 67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노령연금, 하지만 결코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복지 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보조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호주의 모든 수당들은 한가정의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유재산(자동차, 예금, 증권, 모든 재산)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이 넘으면 한푼도 지급이 불가하며 그 수준에 맞게 일부만 지급된다.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집이다. 거주하고 있는 집이 수십만불이던 수백만불이던 수당지급 시 평가재산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살고있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유재산과 연소득을 평가하여 수당액이 결정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만약 시드니 평균주택가격 70만불(한국돈 8억)의 자기 소유의 집이 없다면 주 500불~800불을 내고 월세를 살아야 하므로 정부수당

을 최대 금액으로 받아봐야 먹고살기 빠듯하다. 아니 살 수가 없고 모자란다, 호주의 물가가 매우 비싸기 때문이고 호주는 국민소득 4만불의 국가이다. 우리나라가 2만불이므로 물가가 두 배라 생각하면 된다. 체감물가는 약 3배정도 차이가 난다.

먼저, 한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가정의 경우 입국 후 2년 동안은 아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만약에 애가 있다면 양육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데 양육보조비는 부부합산소득이 연 7만불 이상이 되면 한국이라면 연 3천5백만원 정도인데,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하니 살기가 빠듯하지 않을까 싶다. 수당으로 생활이 되려면 최소한 70만불짜리(한국돈 8억) 자기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방 남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월세주고 부가 수입을 만들고 본인도 잠잠히 캐쉬잡 알바하면서 살아야 그나마 여유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호주이민자는 정부에서 주는 수당 받아서 살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당이란 것 자체가 절대 공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부에서 30%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도 나날이 증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부 예산이 빈약하고 나라 빚만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죽음의 복지뿐이다.

## ■ 맺음말

이번 국외 의정연수는 6박 8일 동안 2개 국가를 방문하면서 빠듯한 일정으로 뉴질랜드와 호주의 의회제도,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 정책 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본 결과보고서는 의원들이 주제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의정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연수기간 중 우리 연수단을 기쁘게 맞아 준 방문도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보다 넓은 생각과 안목을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연수소감을 마친다.

2016. 3.

장성군의회	의 장	김 재 완
	부의장	차 상 현
	의 원	김 옥
		김 회 식
		김 행 훈
		고 재 진
		김 상 복